

## 후지와라 요시에 기념관(구 링거 저택)

후지와라 요시에 기념관은 남성 가수이자 오페라계의 스타였던 후지와라 요시에(1898~1976)의 기념관입니다. 간몬 해협을 내려다보는 남향 언덕에 서 있으며, ‘고요칸’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는 영국 상사 홈 링거사 관계자의 자택이었습니다. 일본 등록 유형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내부 견학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 고요칸

1890 년 홈 링거 상회는 우류 상회라는 회사를 통해 시모노세키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1895 년에는 후에 후지와라 요시에의 아버지가 되는 스코틀랜드계 영국인 닐 브로디 리드(1868~1920)가 현지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1908 년 홈 링거 상회의 영국인 직원을 위해 목조 단층 건물의 사택이 건설되었으며, ‘고요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후에 세계적인 오페라 테너 가수가 되는 후지와라 요시에가 태어난 곳도 이 고요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홈 링거 상회의 경영을 물려받은 시드니 A. 링거가 아들 마이클을 위해 이곳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 층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83 년에 후지와라 요시에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 후지와라 요시에

후지와라 요시에(1898~1976)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유럽과 미국의 많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선보였습니다.

후지와라는 닐 브로디 리드와 비파 연주가인 사카타 기쿠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도쿄에 살던 1918년에 자신의 오페라 재능을 깨달았습니다. 1921년, 후에 총리가 되는 요시다 시게루(1878~1967)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런던의 명망 높은 스타인웨이 홀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습니다. 1923년까지 뉴욕 타임스는 후지와라를 “일본의 루돌프 발렌티노”라고 평가했습니다. 1926년, 후지와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던 레코드 회사인 빅터 레코드와 리코딩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극단 중 하나인 후지와라 가극단을 설립했으며, 이 가극단은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6 년 3 월 22 일, 후지와라 요시에는 77 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 기념관의 컬렉션

기념관은 오페라 스타 후지와라 요시에의 생애에 얽힌 기념품의 보고입니다. 근엄하게 콧수염을 기른 후지와라의 아버지 닐 B. 리드의 초상화가 기모노를 입은 사카타 기쿠와 그녀의 비파가 찍힌 흑갈색 사진과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잡지와 신문의 스크랩도 많이 전시되어 있으며, 후지와라 요시에가 일본 국내외에서 펼친 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 거실에서는 현역 축음기로 후지와라의 초기 히트곡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벽난로, 고풍스러운 가구, 호화로운 샹들리에, 그리고 후지와라 요시에가 애용한 피아노도 있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거 대스타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